

이 만 수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 작품연구논문

‘욕망과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표현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나 유 리

# ‘욕망과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표현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이 만 수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나 유 리

# 인 준 서

나유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07년 본인의 개인전 작품들을 바탕으로 인간의 욕망과 타자와의 관계를 주제로한 작품들의 이론적 내용 및 표현을 분석하여 서술하였다.

본인에게 있어서 작업은 인간의 문제, 욕망에 대한 갈등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상황이나 그 안의 의식들에 대해 사유함에 따라 나와 주변들, 나아가는 인간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심리적 상황을 조형적으로 전개시키는 것이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기본적인 몸에 대한 의미와 이해가 필요하여 이를 논의하였다. 몸의 형태들을 둘러싸고 있는 피부 및 몸의 전체는 외부세계를 받아들이는데 이 흐름은 온전히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세계와 삶의 본질을 구성하는 중심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몸은 외부세계를 받아들여 인식하고 반응하는 역할과 의미를 갖는다. 본문에서는 정신과 접촉되는 몸으로 개념을 확장시켜 정리하고 사회나 문화의 흐름에 따라 미술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몸에 대해 알아보았다.

살아있는 주체로서의 몸은 다른 몸, 즉 타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사회성을 가진다. 인간은 기본적인 몸과 더불어 생각하는 관계중심의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상호교호(相互交互)적으로 살아간다. 그 가운데 시선과 타자, 관계와 사회 안에서 생겨나는 욕망들이 있다. 이 때 우리가 가지는 수많은 욕망들은 주체로서의 나로부터 혹은 타자의 시선이나 기대, 사회의 질서를 통해 형성된다. 이러한 관계 안에서 주체의 혼돈과 사회적 지위나 권위에의 욕망에 흔들리는 인간의 모습들에 주목하여 작업을 진행 하였다.

본 논고는 몸을 기초한 인간의 욕망과 타자와에 관계에 대해 표현되어진 본인의 작업을 중심으로 정리 하였다. 작품 과정 속에서의 인물들은 본인의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타자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이를 웃음으로 수용하려는 현실적인 태도로 표현되었는데 본인에게 해석되어지는 인간들이 감은 눈 또는 공격, 방어적 태도로서 나타남을 설명하였다. 또 인간 사회와 대비되어지는 자연의 순수한 공간을 의미하는 푸른 하늘인 배경의 반복과 물의 상징성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은 인간사회에 대한 본인의 생각들이 회화적 접근으로 표현되어지는 근거나 요소들에 대해 분석하며 인간의 주체성과 존엄성이 상실되고 타자화 되어지는 인간, 스스로가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주는 허무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정리하였다. 이는 외부로 향한 우리의 시선을 본인 내부로 돌아보게 하는 회유의 모색이다.

# 목 차

## 논문 개 요

I. 서 론 .....	1
II. 인간의 욕망과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	3
1. 인간 .....	3
1) 몸의 의미 .....	3
2) 몸과 정신의 접촉점 .....	5
3) 미술에서의 몸 .....	7
2. 욕망과 사회 .....	10
1) 시선과 타자 .....	10
2) 관계와 사회 .....	13
III. 작품의 표현요소 분석 .....	17
1. 표현 된 인물들이 가지는 해학적 태도 .....	17
2. 배경으로서의 의미 .....	21
1) 물 .....	21
2) 하늘 .....	23
V. 결 론 .....	34

## 참 고 문 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작품 1】	등, 장지에 채색, 102cm × 102cm, 2008 .....	25
【작품 2】	붕, 장지에 채색, 102cm × 102cm, 2008 .....	26
【작품 3】	트로이목마 전술, 장지에 채색, 201.5cm × 426cm, 2008 .....	27
【작품 4】	무딘 동행, 장지에 채색, 201.5cm × 142cm, 2008 .....	28
【작품 5】	빗나간 키, 장지에 채색, 201.5cm × 142cm, 2008 .....	29
【작품 6】	sudden attack, 장지에 채색, 160cm × 260cm, 2007 .....	30
【작품 7】	치유의 비행, 장지에 채색, 145cm × 204cm, 2007 .....	31
【작품 8】	A play group, 장지에 채색, 163m × 135cm, 2007 .....	32
【작품 9】	허영의 걸음, 장지에 채색, 146cm × 330cm, 2008 .....	33

# I. 서론

인간은 생명의 주체로서 문화 속에서 욕망을 형성하고 실현하는 존재로 살아간다. 인간은 어떤 자연법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하나씩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역사적 사건이다.

우리가 인간의 몸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몸이 있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측면인데 이러한 사회관계가 배제되어 존재하는 사람은 없다. 즉, 몸은 구체적인 현실의 근거이자 출발이다. 인간이 마음으로 관계 맺음을 체험하고 체득하는 것도 모두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까닭에 본인은 몸에 기초하여 나와 세계를 이해하고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메를로 폰티(Marurice Merleau-Ponty, 1908-1961)의 몸철학의 중심 테마는 나와 타자 사이의 사회적 존재로 요약할 수 있다. 자기정체를 규정지어 말할 때 모든 것의 준거가 되는 것은 타인의 존재이고 인간의 성장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타인 존재의 경험을 통해 비로써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의 철학자 레비나스(Emmanyel Levinas, 1905-1995)는 “타자는 나와 동등한 자가 아니다. 타자와의 비대칭성, 불균등성이 인간들 사이의 진정한 평등을 이룰 수 있는 기초이고, 이런 의미의 평등만이 약자를 착취하는 강자의 법을 폐기할 수 있다”<sup>1)</sup>고 생각한다. 그는 주체와 타자를 철저히 구별하는 이원론적 철학의 기틀을 마련했다.

인간은 사회와 공동체 속에 타자와의 상호관계의 삶을 살 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주체를 잃어버리고 타자화 되기도 한다. 타자에 대한 인식에서 오는 결핍의 욕망이나 주변의 기대가 주체 형성에 영향을 미

---

1) 강영안, 레비나스. 『타자성의 철학』, 철학과 현실, 1995, 철학문화연구소, p.159

치는 것이다. 본인은 자아의 개별성과 사회의 동일화 과정 가운데 겪게 되는 혼란이나 갈등, 인간의 욕망, 그러한 인간들의 관계들 속의 모습들에 주목한다.

본 논문에서는 본인이 사회적 존재로써 가지게 되는 갈등과 더불어 인간 사회의 관계성을 동기로 한 작품들을 바탕으로 설명 되어진다.

2장에서는 인간의 구체적 이해를 위해 몸의 의미를 논하고 그 시대의 인간을 모습, 몸과는 분리되어 질 수 없는 정신과 몸의 접촉점에 대해 살펴봄과 더불어 정신과 몸의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 되어지는 회화에서의 몸을 알아보도록 한다. 이어 인간의 시선이나 타자에 의해 나타나지는 욕망과, 관계 되어지는 사회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3장에서는 인물들이 가지는 해학적 태도와 배경으로의 물과 하늘의 의미하는 표현요소들을 분석하고 작품이 가지는 구성의 조형적 특징과 표현되어지는 인물에 연관하여 본인의 견해와 해석에 바탕하여 서술하도록 한다.

## Ⅱ. 인간의 욕망과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 인간

#### 1) 몸의 의미

우리는 인간 개체로서 갖는 독자적인 단위의 생명체를 몸이라 부른다. 몸은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서 “몸(身)은 좁은 의미에서는 팔 다리와 머리를 제외한 신체기관을 몸이라고 한다. 몸은 여러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혼과 정신을 담는다. 일반적으로 생물이 아닌 개체도,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적인 것을 나타낼 때 몸이라는 말을 쓴다.”<sup>2)</sup>로 정의된다. “언어에는 정확히 우리의 ‘몸’과 ‘육체’와의 구별에 대응하는 말이 있다.”<sup>3)</sup>

몸이라는 개념에서 우리는 ‘구조, 조직, 기능 등의 생리학과 생물학의 영역에 속하는 유기체(有機體)의 몸’과 ‘의미, 가치를 지닌 정신을 동반한 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몸은 기본적인 욕동(浴童)작용을 하는 유기적 물체인 동시에 무수한 의미를 담고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것이다. 하지만 정신과 몸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대립시키는 이원론적 사고<sup>4)</sup>에서는 몸의 이중성은 상실되고, 단순히 물체와 동일시되어 가치와는 동떨어지는 것이 되고 이에 비해 정신은 영원한 것으로 보다 순수하거나 상위의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

2) 위키 한국어 백과사전

3) 이와나미 고이 사전에 의하면 ‘몸(身)’은 생명이 있는 육체를 ‘육체(からだ)’는 생명이 없는 형해(形骸)가리킨다. 영어의 바디(body)와 플레쉬(flesh) 프랑스어의 꼬르프(corps)와 체르(chair) 라틴어의 꼬르푸스(corpus)와 카로(caro)등의 구별이 그것이다.

4)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Descartes-Rene, 1596-1650)

몸은 기본적 욕구를 하는 동시에 외부세계를 내면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의식의 흐름이 있는 의미의 존재이다. 욕구하는 존재에서 욕망하는 존재로 변한 것이다. 몸은 더 이상 욕구를 표출하는 유기체적 모습이나 보여지기의 실체가 아니라, 몸 그 자체의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고 인간과 세계 사이의 연결고리가 된다.

이제 몸은 스스로의 욕구를 채우는 자기 지각의 몸을 넘어서 외부를 의식한다. 몸으로서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몸에 의한 세계파악도 인식의 일종이다. 인식을 표현하는 프랑스어의 꼬네쌍스(Connaissange)는 ‘함께 생기다’ 라는 뜻이다. 몸은 출생과 함께 그 나름의 방식으로 세계를 파악하고 인식한다.” 5) 몸적 인식은 지각(知覺)을 대신해서 나온다. 몸이 위치를 갖고 방향을 가짐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이 생기고 위 아래가 생기는 것이다. 즉, 관점(觀點, perspective)이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을 가진 몸은 모든 면으로 몸의 외부와 내면을 파악한다. 몸 자체가 세계를 파악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다.

인간은 몸을 통해 세계에 거주한다. 몸은 사회적인 것의 육체적 거처인 동시에 철두철미하게 사회적이다. 몸이 없다면 사회성도 없고 현실도 없다. “몸이 거처(居處) 또는-고대 앵글로색슨어로-뼈의 집(banhus)과 몸의 집(lichama)이듯이 ‘거주한다’ 라는 말은 우리의 몸이 ‘지상에 거주한다’ 라는 자아와 지구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우리는 몸을 주목한다.” 6)

생명체는 몸을 통한 지각 작용에 기초하여 ‘나의 세계’ 를 형성함으로써 비로소 ‘몸’ 또는 ‘몸체’ 로 불리는 것과 구분될 수 있는 ‘마음’ 또는 ‘의식’ 을 갖는다. 몸이 세계를 인식할 때 자아가 생겨나고 자아는 결국 신체감각으로부터 유래되는데 주로 신체의 표면으로부터 나온 감각들이다. 따라서 자아는 신체표면의 정신적인 투사로 간주될 수 있는데 게다가 정신

---

5) 미와마사시, 『몸의 철학』, 해와달, 1993, p.33

6) 정화열, 『몸의 정치와 예술, 그리고 생태학』, 아카넷, 2005, p.177

기구의 표면을 표상하기도 한다. 몸과 마음이 초월하여 관계를 구성하는 것도 언제나 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니체는 『힘에의 의지』에서 몸을 정치적 구조로서 묘사하고 『선악의 피안』에서는 몸을 많은 영혼으로 이루어진 사회구조라고 기술한다. 말하자면 몸은 사회성의 작용이나 영향을 나타내는 많은 영혼들의 집인 것이다. 니체에게 있어 영혼은 저마다 사회적인 것의 각인인데 이러한 영혼들로서 하나의 몸이 이루어지며 몸은 이론적 관조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적 행위의 총화가 된다. 몸은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세계의 상징들을 실어 나르는 전도체이다. 세계와 세계를 살고 있는 혹은 인식하는 인간 주체와의 관계의 중심인 것이다. 결국 몸은 브르통(Andre Breton, 1892-1966)이 말한 “삶과 죽음, 현실과 상상, 과거와 미래, 소통할 수 있는 것과 소통할 수 없는 것, 높은 것과 낮은 것이 더 이상 모순되지 않는 정신의 어떤 지점” 7)을 체화(體化)한다. 삶과 예술은 분리된 것이 아닌 것처럼 작품속의 몸은 나와 타인, 몸과 세계간의 경계를 없애고 상반된 모순을 와해(瓦解)시키는 역할을 한다.

## 2) 몸과 정신의 점착점

“한 유기체의 몸은 다른 몸과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물리적 우주의 일부이다. 그러나 정신은 단 하나의 몸과 연결되어 있다. 정신은 세계나 다른 몸이나 다른 정신에 곧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8) 신체에서 괴리된 이성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몸은 단순히 영혼의 실존을 위한 물질적 조건

---

7) 피종호, 『몸의 위기』, 까치글방, 2004, p.12

8) 어윈 스트라우스(Erwin W. straus), Phenomenological Psychology (New York : Basic Books, 1966) p.211 / 『몸의 정치와 예술, 그리고 생태학』, p.181

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것을 통해 우리 영혼의 내적 조건을 엿볼 수 있는 창문이다.” 9) 몸의 개념은 달라지고 있다. 우리는 몸을 통하여 세계를 이해하고 새롭게 받아 들인다. 이제 몸과 정신은 어떠한 것에도 우위성을 두지 않는다.

“인간의 기관은 전체로 사유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나누는 것은 우리를 사유행위의 한쪽 측면으로만, 그리고 사유와 지식의 육체적 형식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관점으로만 이끌어가는 분리현상 속에서 논리와 지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결과이다” 10) 라고 시웰은 주장한다. 인간이라는 개념속에 몸과 정신은 함께 존재하며 그 어떠한 것도 그 하위의 개념으로 갈 순 없다. 몸이 정신이고 정신이 몸이 되는 것이다. 몸과 정신은 서로 관계한다. “생각하는 나는 정신과 몸이다. 생각이 나의 존재 이유가 된다면, 생각은 또한 몸의 이유도 된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는 몸도 존재하기 때문에, 몸과 정신의 결합체만이 생각의 이유가 될 것이다. 만약 내가 몸에 불과하다면 나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정신에 불과하다면 나는 (순수한)지성만 소유하게 된다. 사실 생각은 기호일 따름이며 내가 정신이 되는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11)고 했고 “인간의 몸은 동물의 유기체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생물학의 실수가 영혼을 인체에 결합시키거나 정신을 영혼에, 또는 실존을 정신에 결합시키면서 이전보다 더 큰 목소리로 정신을 찬양한다고 해서 극복되는 것은 아니다.” 12) 라고 몸과 정신에 대해 정의 내려 지기도 했다. 또 프랑스의 조각가 어귀스트 르네 로댕(Rene-Francois- Auguste Rodin)의 조수이기도 했던 릴케는 “작품 ‘생각하는 사람’ 이 깊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지만, 그는 행

9) 정화열, 『몸의 정치와 예술, 그리고 생태학』, 아카넷, 2005, p.90

10) 미국의 소설가 시웰(Elizabeth Sewell, 1919-2001)

11) 비코(Giambattista Vico, 1668-1744), On the Most Ancient Wisdom of Italians, trans. L. M. Palmer (It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1988) p.56 / 『몸의 정치와 예술, 그리고 생태학』, p.263

12)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 Letter on Humanism / 『몸의 정치와 예술, 그리고 생태학』, p.264

동하는 사람의 힘을 총동원하고 있다. 그의 몸 전체가 머리가 되고 그의 혈관을 흐르는 모든 피는 두뇌가 된다.”<sup>13)</sup>고 몸과 정신의 관계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했다.

### 3) 미술에서의 몸

고대의 회화에서의 몸은 몸과 동작이 그림의 중심을 차지하고 이는 주로 형태적 유사성에 근거하여 재현된 기호, 즉 도상(圖像, icon)으로서 회화 공간에 등장하였다. 또 인체 그림은 외적인 권력이나 경제의 장으로서의 기능으로, 화가는 정해진 규범에 따라 재현의 기술을 구사하는 장인의 역할이 컸고 자기 자신의 주관적 심미관을 함부로 표현하기에는 외적 제약이 너무 컸다. 특히 과학적 사고가 태동하기 시작한 르네상스 시기에는 의사들이나 과학자들보다도 화가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몸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을 발전시켰고 이 후 고전 미학의 붕괴와 함께 그 역할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프랑스의 화가 마네(Edouard Manet, 1831-1883)의 ‘올랭피아(Olympia)’<sup>14)</sup>는 변화된 신체관과 회화관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당시 누드화는 인기 있는 소재 중에 하나였지만 대부분의 누드화는 여신의 모습으로만 등장했었다. 프랑스의 소설가 알렉상드르 뒤마(Alexandre Dumas p re, 1802-1870)의 소설 『춘희』에 등장하는 올랭피아는 춘희의 연적으로서 부끄러움을 모른 채 아름다운 육체를 팔아서 살아가는 창녀의 이름이다. 마네가 이 작품을 제작할 당시 『춘희』의 영향으로 올랭피아는 파리에서 창녀의 대명사가 되

---

13) 릴케(Rainer Maria Rilke, 1875-1926), trans. Jessie Lemont and Hans Trausil (London : Grey Walls Press, 1946) p.33 / 『몸의 정치와 예술, 그리고 생태학』 p.264

14) 에두아르 마네(Edouard Manet, 1831-1883)-폴리 베르제르의 술집, 막시밀리안의 처형, 피리부는 소년, 올랭피아, 풀밭 위의 점심 등의 작품의 대표작들이 있다.

었다. 마네의 작품은 미술사에서 근대 미술의 전환점을 만들어 준다. 마네는 풍만하고 고전적인 여신이나 님프를 거부하고 ‘올랭피아’ 작품에 방금 옷을 벗은 듯한 창녀를 묘사함으로써 미술사 최초 현실의 여자를 화폭에 담았다. 이제 몸을 표현하는 화가는 신체의 비례와 명암의 구조를 연구하거나 아름다운 인체의 여신이 아닌 자신이 느낀 그대로를 표현한다. 이는 회화에서의 몸에 대한 재해석이자 환경속의 신체, 변화하는 신체, 미의 규칙의 저항하는 신체의 탄생인 것이다. 그의 그림을 시작으로 진정한 화가의 시대인 인상주의가 열렸다. 그러나 마네와 인상주의의 현대적인 몸은 아직은 빛의 움직임에 지배받는 신체의 표현이었다. 고전주의적 재현보다는 더욱 정확한 외적 현실의 재현이었지만 이때까지도 외적 진실만이 아니라 내적 진실이 추가 된 현대적인 신체의 회화표현은 아니었다.

19세기 말부터 제시되기 시작한 심리학적 연구들의 성과로 신체는 외적 법칙이 통과한 장소로서보다는 내적 법칙인 욕망의 법칙이 통과한 장소로서 더욱 커다란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욕망하는 신체와 욕망의 대상이 된 신체는 눈에 보이는 것을 표현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포착하려고 함에 따라서 더욱더 사실주의적 외관을 상실해 가는 경향을 보인다. 회화 속의 몸도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현대에 와서 몸에 대한 인식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이 되고 있다. 정신의 우위를 강요해 온 서양문명의 이성 중심주의가 포스트 모던시대에 들어 전면적으로 거부되면서 ‘몸의 인식론’이 중시되었다. “몸의 재현의 과정에서 신체는 그 자체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호로 나타난다. 그리고 재현된 신체는 신체 자체 뿐만 아니라 일련의 은유적인 의미들로 맥락 안에서 구성과 양식을 통해 이루어진다.”<sup>15)</sup> 점차적으로 “인체의 이상적인 기능을 바탕으로 철학, 사회학 등에서는 이 시대의 몸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며, 몸이 사회적 조건이나 인식의 틀과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

15) 니콜라스 미르조예프, 『바디스케이프』, 이윤희,이필 역, 시각과 언어, 1999, p.18

있는지를 다루게 된다. 또 젠더이론, 시선이론, 페미니즘 이론을 통해 권력, 지배, 욕망 그리고 사회 등과 몸의 관계성이 부각 되었다. 미술에서의 몸은 언제나 중심테마가 되어 왔지만 몸이 문화와 사회 속에서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라는 새로운 견해는 몸에 대한 미술 이론에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다.” 16)

몸은 인식의 통로이자 동시에 내면을 드러낸다. 정신이 동반 된 의식있는 주체의 자아표현이다. “몸에 대한 예술적 관심은 몸의 개인적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정체성을 찾기 위한 시도에서 비롯된다. 몸의 분열이나 파괴와 같은 자기 동일성에서 벗어난 미적주체의 위기현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17)

회화 속의 몸은 역사와 궤를 같이하는데 이어 20세기의 격렬한 변혁의 움직임과 함께 현대의 신체는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변하는 ‘환경적 신체’로서 이전의 ‘죽은 신체’에 대해서 또는 ‘해부학적인 신체’에 대해 신체를 통과하는 격렬한 감각과 인상이 부딪치며 변화하는 미술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다. 또한 미술안의 정의 역시 고정된 의미의 장으로부터 유연하고 복수적인 의미들의 장으로 폭발하였다. 점점 몸의 미학은 “산업화로 인한 기계화, 표준화, 규격화 된 몸” 들로 나타나며<sup>18)</sup> “전쟁은 산업적인 살육을 가지고 오는 동시에 미술에서의 절단된 몸, 환각에 의한 몸, 성적으로 표현된 몸, 악몽에 나타나는 몸” 이 된다.<sup>19)</sup> 또 다른 형태 아래 출현 되어지는 몸은 “행위자로서, 생산자”<sup>20)</sup>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예술가의 퍼포먼스

---

16) 한림미술관·이대기호학연구소, 『몸과 미술: 새로운 미술사의 시각』, 이화여자대학교, 1999, p.13

17) 피종호, 『몸의 위기』, 까치, 2004, p.92

18) 라울 하우스만(Raoul Hausmann, 1886-1971)-여러 종류의 기계적 인공신체표현의 대표작품이 있다.

19) 고야(Francisco Jose de Goya, 1746-1828)-전쟁으로부터 환각으로 가는 동일한 이동의 작품의 흐름으로 알 수 있다.

20) 조세프 보이스(Joseph Beuys, 1921-1986)-추상 표현주의자들의 방식, 제스처적인 실천들, 마술적 효과의 주체자로서의 예술가/ 앤디워홀(Andy Warhol, 1928-1987)-자동기계, 자체적인 생산자로서의 예술가 등이다.

나 해프닝이 바로 몸의 미술이 되는데 이제 몸은 예술적인 장치이지 형상화된 현실이 아니다. 몸 그 자체로 돌려지고 주제가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예술가들은 “돌연변이적인 몸이나 인공적인 몸 즉, 변형된 몸이나 신화적인 새로운 변신 속에서 괴물처럼 된 몸들을 제시하기도 한다.” 21)

몸을 대하는 화가는 자기들의 방식으로 사회속의 몸을 표현하고 사회를 드러낸다. 미술 안에서 몸은 다양한 문화의 흔적들과 함께 시대와 장소에 따라 몸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인간의 심리적 작용이나 사회 전반적 관계의 형상화인 몸의 표현은 역사의 흐름과 같이 재해석 되어지고 새로운 문화의 흔적이 된다.

## 2. 욕망과 사회

### 1) 시선과 타자

인간은 다른 사람들, 다른 존재와 물건들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려는 탈중심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간은 몸을 통해 바깥세계에 노출되고 또 몸을 통해 바깥세계로 나아간다. 본문에서는 ‘보기’ 즉 시각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와 밀접하게 연관된 주체, 욕망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눈으로 본다는 단순한 사실은 신비로운 작용이다. 눈 망막의 감각세포를 통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한 사고를 하게 하기 때문이다. 시각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다른 어느 감각보다도 우월하다. 성서에서 이미 “안목의 정욕” 22)을 경계하고 있듯이 ‘보기’의 행위는 인간 욕망의 중

---

21) 매튜바니(Matthew Barney, 1967-), 마리코 모리(Marico Mori, 1967)

22) 신약성서, 요한일서 2장 16절

요한 동기가 된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본다는 것은 그 대상을 전체로 하기 때문에 시각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내가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인식하는가 하는 인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시각적 경험은 우리의 주체의 형성에 결정이나 해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로 반영된 의식은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주체를 형성하게 된다. 주체를 형성하는데 타자의 시선이 개입되면서 우리는 타자에 동일시 되거나 또 다른 주체가 되기도 한다. 나와 타인의 존재에서 사르트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타인은 나의 존재와 내 자신을 아는데 불가결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조건 하에서 나의 내면의 발견은 내 앞에 놓인 하나의 자유로서 나와 일치하거나 대립하여서만 생각하며 원하는 타인을 내게 발견시켜준다. 것처럼 우리는 상호주체성이라고 부르려는 하나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인간이 자기는 어떤 존재이며 타인은 어떠한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세계에서이다.”<sup>23)</sup> 자기 정체, 즉 주체의 형성에 대부분의 준거가 되는 것은 타인의 존재이다.

이처럼 몸과 타인의 몸이 만나 일어나는 관계에서는 상호주체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 관계 속에서 감각적인 기능들을 갖는 한, 몸은 또 다른 주체들로서 파악되는 타자들과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시선이 활동하면서 둘러싸고 있는 대상들은 새로운 층의 의미를 부여받고, 지각되는 몸으로 인해서 나에게만 현전하는 세계가 다른 통로(타인의 몸)와 동시에 거주한다. 시각의 인식을 통해서 나의 몸과 타인의 몸이 전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인식되어지는 사회집단이라는 타인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나’ 라는 주체는 욕망과 주체 형성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그 안에서는 주체의 생성, 나에게 대한 인식과 또 다른 주체의 만남과 충돌이 발생되는데 여러 학자들은 시선에 연관

---

23) 장 폴 사르트르 (Jean Paul Sartre),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왕사영 역, 청아, 1993, p.44

하여 문제로 삼고 논의 하고 있다. 주체의 형성과 시선의 환위의 작용 사이에서는 인식과 결핍의 문제가 생긴다. 이 때 앞서 언급한 보기의 욕망이 나타나게 된다.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Lacan-Jacques Marie Emile, 1901-1981)은 인간에게 욕망은 얼굴을 마주보는 상황에서 생겨나며 특히 시각의 차원에서 충동은 눈과 시선의 분열이 일어나는 곳에서 나타난다고 말한다. 시각의 문제와 관련해 그가 말하는 욕망은 필연적으로 주체의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주체의 분열은 충만함의 이상에 사로잡혀 있던 주체가 결핍을 느끼면서 나타난다. 즉, 타자의 시선을 의식하는 주체는 도달 불가능한 어떤 것을 갈망하는데, 라캉에 의하면 그것은 영원히 채워질 수 없는 허구적 대상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주체는 불만족 상태에 있게 되며 그 결핍을 메워줄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게 된다. 라틴어 ‘desiderare’는 결핍을 느낀다는 것인데 여기서 결핍은 지금의 프랑스어 욕망 ‘desir’ 와 연관되어 있다. 타자에 대한 시각의 인식으로 인해서 주체의 결핍은 욕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보는 것과 보여짐의 시각은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내가 대상을 바라보듯이 대상 또한 나를 바라보고 있음을 아는 것, 즉 나의 바깥에 있는 타자의 존재를 인식하며 그의 시선이 나의 존재 자체를 구성할 수도 있음을 아는 인식의 차원이다. 즉, 타자의 시선 앞에 놓인 자아가 오히려 타자에 의해 대상화 될 수 있다.

“보는 자는 그가 보고 있는 것에서 포착되기 때문에 그가 보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이다. 즉 모든 봄에는 근본적으로 나르시시즘이 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보는 자는 그가 수행하는 봄을 사물들을 대리하여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흔히 많은 화가들이 말하듯이 나는 내가 사물들에 의해 주시되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며, 나의 능동성은 수동성과 동일한 것이다. 나르시시즘에 비해 이차적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심오한 것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거주하고 있는 내 몸을 보듯이 사람들은 자신이 거주하

고 있는 몸의 윤곽을 바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몸에 의해 보인다는 것, 그 몸속에서 존재한다는 것, 그 몸의 환영에 의해 유혹되고 매혹되어 자신을 양도한다는 것, 그럼으로써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이 서로 환위된다는 것, 따라서 어느 것이 보는 자이고 어느 것이 보이는 자인지를 알 수 없다.” 24)

존재의 영역에서 볼 때 보는 자가 보이는 것들, 즉 가시적인 것들의 영역으로 이미 편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보는 자가 곧 보이는 것이고, 보이는 것이 곧 보는 자라는, 봄과 보임의 상호 환위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여기서 메를로 폰티는 지각하는 자는 원리상 지각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전통적인 주객 이분법을 파괴한다. 메를로 폰티는 몸은 세계 내적으로 있음과 세계 외적으로 있다고 했다. 이러한 몸의 두 세계성을 ‘나의 몸은 보는 것이고, 동시에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다. 몸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물을 보는 것이면서 또한 자기 자신에 의해서도 타인으로부터도 마찬가지로 보여지는 것이다. 즉, 모든 것은 보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보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사회와 공동체는 타자와의 상호관계를 전제로 타자는 항상 타자의 몸으로 나에게 나타나며, 나 역시 나의 몸으로 상대방에게 나타난다. 즉, 인간은 몸을 통해 세계 속에 뛰어들어 참여하고 있다는 것과 몸을 매개로 타인과의 상호관계의 장을 열며 주체를 형성한다.

## 2) 관계와 사회

인간의 몸은 모든 사회 속에서 타자의 인식을 하게 된다. 사회학자인 어빙 고프먼(Erving Goffman, 1922-1983)은 ‘상호 작용의 의식들’에 대해

---

24) 정화열, 『몸의 정치와 예술, 그리고 생태학』, 아카넷, 2005, p.75

말하는데<sup>25)</sup> 몸 ‘안에서’ 몸을 ‘통해서’ 그리고 몸과 더불어 사고하면서 몸에 관한 사회적·정치적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상호육체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대표적인 형이상학과 시인이자 런던 세인트폴 성당의 참사원장인 존던(John Donne, 1572-1631)은 “어떠한 사람도 고립된 섬이 아니다. 개체만큼이나 많은 문화가 있으며 각자 자신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페러독스는 타자들과 맺는 의존 관계 안에서 완전히 혼자이다.” 라고 말했고, “모든 것은 상호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뿐 어느 것도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sup>26)</sup> 고 했다. 이러한 관계론적 사유관계와 각 몸들은 사회 안에서 공존하는데 나아가서 교육과 코드화를 따르게 된다. 이것은 사회화의 형성이다. 몸이란 집단 안에서 그리고 집단들 사이에서 정체성 확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사회적 코드화들에 종속되어 그에 맞춰 빛어진다. 이러한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어떤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된다. 여기서 여러 가지 사회적 위치들이 개입되어 자신의 제시, 집단적 소속, 직업적이고 사회적인 구도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지위, 권력에의 형성에 의한 인정받기의 욕망이 생겨난다. 인간관계가 존재하는 그 어디서나 나타나는 현상인 사회적 인정은 궁극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적 욕망을 의미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타자에의 인식에서 생긴 결핍의 욕망과 같은 맥락으로 본다. 욕망은 물론 개인적인 것만은 아니다. 사람이 자연이나 사회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것이어서 신체외적 차원은 개체의 고유한 세계를 표현하고 신체는 그 내면을 밖으로 드러낸다.

한편, 주체는 ‘나의 세계’와 ‘너의 세계’를 분명히 구분하는 자의식

---

25) 미국의 사회학자. 사회의 성원이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사회적 현실성을 전략적으로 조작하는 상호행위과정의 실재를 밝힌 많은 저작이 있다. 저서로 『행위와 연희(演戲)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1956), 『Asylums』(1961), 『Encounters』(1963), 『Frame Analysis』(1974) 등이 있다.

26) 한국하이데거학회, 『하이데거 철학과 동양사상』, 철학과 현실사, 2001, p.203

(self-consciousness)과 그것에 기초하여 나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정체(identity)를 구성하는 의식의 주체가 자아(self)가 있다. 자아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주체를 바깥세계(타자와 사회)에서 분명하게 경계를 구분시키지만 자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사회안에서 각 몸은 타자에 대한 결핍의 욕망과 관계의 과정에서 주체는 자아의 일관성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미셸푸코(Michel Foucault, 1929-1984)의 권력의 개념에서 현대 사회에서의 권력은 주로 개인에 의해 실제적인 통제를 가하는 미시적 권력(microlevel power)에 의해 달성된다고 보았다. 즉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은 예전처럼 고문과 처벌에 의한 강제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시행되기 보다 개개인에게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가에 대한 기준을 부여하고 이를 학습시킴으로써 그 효과를 배가한다. 개인들은 모든 생활에서 여성이나 남성, 혹은 국민이나 시민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주입받게 되며 이를 마침내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내면화한다. 개인에 대한 사회적 통제는 개인이 사회가 제공하는 기준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달성된다.<sup>27)</sup> 이렇듯 타인으로 인해 생각과 가치관, 행동패턴이 전달되기도 하는 것은 이들을 연결하는 근본적이고 무의식적인 동화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철학자인 사르트르(Jean Paul Sartre, 1905-1980)는 “일체의 타자성을 부정하고 초월할 때에 주체가 성립된다.- ‘타인은 지옥이다’ -내가 주체일 경우 타인은 그저 대상에 불과할 뿐 주체가 아니고 타인이 주체일 경우 나는 대상일 뿐 주체가 아니다.”<sup>28)</sup>라고 말한다. 타인을 부정하고 초월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주체의 상실이 온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성이나 권력의 문화는 마치 우리가 숨 쉬는 공기만큼이나 기본적인

---

27)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Paul Foucault, 1926-1984)

28) 조광제, 『몸의 세계, 세계의 몸』, 이학사, 2004, p.373

것이며 타자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를 포함하는 지극히 발전된 인식 행위의 산물이다. 그렇지만 사회속에 주체를 동질화 시키기도 한다. 주체성은 사회화 가운데 상실되어지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욕망에의 풋대로 달려가게 한다. 다수의 바람과 보편화되어진 성공이 같은 욕망을 꿈꾸게 하고 사회라는 제도 속에서 서로에게 동일시 되어지는 것이다.

### Ⅲ. 작품의 표현요소 분석

#### 1. 표현 된 인물들이 가지는 해학적 태도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작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기 위하여 저마다 인간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갖는데, 그 결과 인간의 모습은 시대 안에 독특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해석되고 표현되어 미술 속에서 드러난다. “예술작품 창작의 주제는 허황된, 공상적인 것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머물러 살고 있는 사회적 현실의 모든 내용에 바탕을 두며, 바로 이것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면서 작품제작의 완성을 도모한다.” 29)

본인의 작업 또한 현실적인 삶 가운데에 이를 바라보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간은 사회 안에서 상호관계를 갖으며 존재하는데 이러한 인간의 관계성에 기반 하여 주변 인물들의 상황들을 시각적으로 작업하였으며, 인간이라는 단순한 형태의 재현만이 아닌 본인의 내면의식과 결합된 주관적 표현을 하고자 했다.

살로서의 몸으로 표현 된 인물들은 유기체(有機體)적 욕망을 가진 맥락과 더불어 타자와의 관계 중 결핍에의 욕망으로 재현되었다. 이러한 욕망에 찬 인간의 모습을 살로써의 몸으로 나타내는데 인물들의 욕망에 대한 비판의 견해가 비대한 고깃덩어리로의 살을 가진 몸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더불어 인간과의 관계를 얼굴로서 드러내는데 이는 지극히 당위(當爲)적이다.

“얼굴은 사회적인 텍스트이자 비명(碑銘)이다. 얼굴은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의도되었으며, 자신은 거울 없이는 자기 얼굴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타자가 나 자신의 거울, 아니 사회적인 것으로서의 거울이 된다.” 30)

29) 박준원, 『예술노트』, 서울: 미술문화사, 1995, p.108

30) 정화열, 『몸의 정치와 예술, 그리고 생태학』, 아카넷, 2005, p.48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얼굴을 살펴보자. 본인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을 반복해서 그린다. 많은 학자들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얼굴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 했다.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은 『철학적 탐구(Philosophical Investigation)』에서 ‘인간의 몸은 인간 영혼의 최고의 그림이다.’ 라고 선언하고 ‘얼굴은 몸의 영혼이다.’ 라고 인간의 얼굴을 본질적으로 정의했다. 프랑스 현상학자 프랑시스 자크(Francis Jacque)는 얼굴이 ‘지구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표면(surface)’ 이라 주장한다.”<sup>31)</sup> 얼굴에는 우리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욕망에의 정동(情動)도 피부얼굴태도의 변화로 나타난다. 욕망이란 바로 정동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여러 가지 정동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얼굴의 근육들은 작용한다.

“여러 가지 정동이 일어날 때 왜 여러 가지 근육이 작용하게 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면, 왜 슬픔이나 근심이 있는 사람은 눈썹 끝이 올라가고 입꼬리가 내려가는지 말이다.”<sup>32)</sup> 찰스다윈은 몇 가지의 근육 수축만으로도 주체의 정동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듯 정체성이나 성격을 측정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얼굴은 본인의 작품에서 모두 개성이 없는 같은 얼굴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 속에 타자화 되어가는 주체성을 상실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을 표현한다. 본인은 문득, 스스로의 진정한 색과 개성을 잃은 채 주변이 바라는 즉, 사회로부터 요구되어지는 보편적인 지향점에 맞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타자와의 관계에 의한 다수의 바람과 태도에서 발생되어지는 것들 가운데는 본인 스스로의 목표나 개성이 아닌 헛된 욕망이나 목적 없는 경쟁들로 느껴지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본인은 작품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자신의 목적과 가치를 놓치고 사회의 흐름과 시대의 요구에 맞춰 살아가는 모습을 꼬집어 표현하게 된 것이다.

---

31) 위의 책, p.37

32) 찰스다윈(C.R.Darwin, 1809-1882), 『인간과 동물의 정동표현 (The Expression of the Emotions in Man and Animal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5

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서로를 향해 또는 자신도 알 수 없는 무엇인가를 향해 소리 지르는 듯한 모양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데 이는 외부에 대한 거부감이나 공격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의식적으로 인물들의 얼굴표정을 완화시키거나 감추거나 혹은 반대로 과장시킴으로써 변화하고 위협하는 세상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고 순응시켜나가게 해주는 것이다.

작업에 나타난 얼굴표정의 보편성과 더불어 냉담한 미소가 있다.

얼굴이 몸의 영혼이라면 시각은 얼굴의 영혼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간은 관찰자이기 때문에 봄과 보여짐의 시선을 통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의식의 인지에 따라 주체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생각과 가치관이나 행동패턴이 전달되어 무의식적 동화작용으로 타자화 되기도 하고, 타자에 대한 인식에 의한 결핍의 욕망이 생겨나기도 한다.

본인의 작품속의 인물들은 모두 눈을 감고 있다. 인물들의 감고 있는 눈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외면함을 의미한다. 인간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만 나의 모습을 확인 받게 된다. 오히려 타자화 되어지는 사회에서 주체를 찾으려면 시선이 외부로 향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욕망 때문에 주체를 상실하게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그림 속에 인물의 눈을 감게 하는 작용을 한 것이다. 이것은 외부로 향한 시선으로부터 오는 맹목적인 욕망에 대한 본인의 비판인 동시에 갈등으로 인한 거부의 표현이다. “눈은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에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게 함을 나타낸다. 즉 볼 수 없고 잡을 수 없는 생각들, 무의식들, 꿈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내적인 시선을 표상하는 것이다. 르네 마그리트의 감은 눈, 폴 델보의 여성들의 텅 빈 눈은 외부로 향하지 않고 내부로 열려있는 눈의 형상화라 할 수 있다.”<sup>33)</sup> 이처럼 시선은 몸의 안과 밖, 존재와 현실을 알게 한다.

---

33) 피종호, 『몸의 위기』, 까치글방, 2004, p.15

인간의 욕망에 대한 본인의 태도는 관조적인 비판으로 그치지 않는다. 눈을 감고 있는 동시에 미소를 띄고 있는 모습으로, 비판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수용하려 한다.

미국 정치 철학자 아렌트(Arendt, Hannah, 1906-1975)는 ‘웃음이야말로 권위의 최대의 적이며 권력을 손상케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이라고 말했다.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는 인간의 개인적 욕망과 능력이 요청 되어서인데, 일정한 능력은 권력을, 권력은 구체적 권력 장치(사회)를 만들게 한다. 본인은 우리의 사회나 권력의 욕망에 대한 해석을 거부하며 소리지르는 얼굴표정과 함께 나타나는 알 수 없는 듯한 미소로 표현한다. 이는 비웃음의 조소도 아니다. 외부에 대한 갈등 속에서 나타나는 본인의 애매한 태도일 수도 있다. 욕망이 가득찬 사회에 대한 인정과 부정의 반복된 태도이자 어느 것도 그렇다할 입장을 취할 수 없음은 본인 또한 그러한 인간이기에 웃어 넘길 수 있는 해학적 의미로 표현한다.

작품의 또 다른 특징은 등장인물들 관계속의 동작이다. 등장하는 인물들은 각기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인간사회 관계들을 향한 긴장감이나 본인이 생각하는 모순의 현상들에 대한 ‘놀이의 언어’ 인 몸짓이다.

광대성이나 축제성은 유희적인, 비폭력적인 전복의 형태로서 실제세계를 파괴하고 가능한 세계를 건설하게 한다.

인간관계가 존재하는 그 어디나 나타나는 현상인 인정받거나 결핍에 대한 욕망의 몸부림을 우스꽝스러운 놀이의 면으로 해석해 보려는 것이다. 이들의 움직임은 공격과 방어의 이중적 형태로서 인간 서로에 대한 혹은 인간에게 다가오는 상황들에 반응하는 태도이자 본인 스스로의 갈등이기도 하다.

## 2. 배경으로서의 의미

### 1) 물

지구상의 수많은 물질들 중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고 또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물이다. 물은 색채가 없는 투명한 물질이다. 이러한 투명한 맑음은 주변 환경의 색채를 그대로 반영하여 쉽게 조화를 이루며 깨끗하게 정화 시켜주는 요소이다. 그 맑음은 빛을 투과 시키는 동시에 빛의 굴절에 의해 반사를 일으킨다. 이러한 특징은 물체의 형태를 선명히 보이게 한다. 이렇듯 물의 순수성은 우리 인간에게 깨끗함인 정화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본인은 인간들의 욕망에 대비되어지는 순수의 이미지로 무한함의 상징인 물을 배경에 넣어 표현한다. 인간과는 반대개념의 순수성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대처로 인간에 대한 욕망을 더 극적으로 몰아가 보았다. 물은 일정한 부피를 가지되 그 고유한 형태를 가질 수 없어 그것이 존재 하는 환경과의 관계에서 그 물리적 한계와 형태가 결정된다. 이러한 물의 무형성은 실체를 구체화 하기는 어렵지만, 반면에 그 무형의 신비함으로 무한한 상상력을 이끌어 주기도 한다. 물은 움직임이 있는 독특한 반사체로서 이어진 곳이 없는 연속적인 물체이다.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sup>34)</sup>는 물의 반사성에 대하여 “반사된 세계의 아름다움 때문에 호수, 연못, 잠자는 물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상상력을 일깨운다.”<sup>35)</sup>라고 하여 물의 반사성으로 인한 우리의 상상력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또 순환성을 가지고 있는 물은 수많은 상징을 만들어 낸다. “물은 수소와 산소의 분자 결합을 넘어 그에 얽힌 무수한 사연들을 가지고 있다.”<sup>36)</sup> 수세기에 걸쳐 물은 그 상징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속성을

34) 프랑스의 과학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 1882-1962)

35) 김현, 『몽상시학』, 홍익신서, 1978, p.221

통하여 정신적인 생각들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매개체가 된다. 물을 통해 정신적인 교감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상상력을 통해서 가능하며 이 상상력은 존재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 원초적이고 영원한 것을 존재 안에서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물의 물리적 속성을 뛰어 넘어 무한한 정신세계로 이끄는 물의 이미지가 인간과의 정신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물의 무형의 신비함과 연속적 결합과 무한의 포용력과 상상력의 자극은 인간 관계속의 복잡한 사건들에 대한 치유이자 순수성의 회복이라 생각한다.

물은 표면적인 이미지 밑에 심화된 이미지가 존재하며, 심연의 깊이와 표면의 넓이, 파문이 일고 흐르는 등의 물리적인 속성을 통해 자유로운 상상을 펼치도록 유도하여 앞서 언급한 생명력과 치유의 이미지로 역동성과 변화로 반영과 나르시시즘의 정신적이고 상징적인 요소를 갖는다. 그리고 물은 모성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물에 대한 무의식적인 갈망이며 순수자연의 소망이다. 물의 순수함, 정결함 등으로 동·서양에서 오래전부터 중요한 상징적인 요소로 발견되며 종교에서의 영세의식만 보더라도 많은 종교에서 물을 통하여 더러운 영혼을 변화시켜 정화하려는 힘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서양의 멜시아 엘리아데(M. Eliade)는 “물에 들어가는 것은 형태 이전으로 되돌아감, 완전한 재생, 새로운 탄생으로 역행하는 것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물에 들어감은 형태의 해소, 선재하고 있는 것의 무형태성으로의 회기를 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물로부터 발생하는 것은 형태의 현현이라는 우주 발생적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물과의 모든 접촉은 재생을 포함하고 있다” 37)고 하여 새롭게 태어난다는 신생의 종교적 의미를 표현함으로써 물의 상징을 죽음과 생명의 상징으로 보았다. 【작품5】

동양에서는 중국의 노자(老子)가 물의 중요한 모습의 하나로 평형작용의

36) 노주선, 『물의 은유를 적용한 주택디자인 연구』, 석사학위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2004

37) 한우정, 『혼적에 대한 물이미지 표현연구』, 석사학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1

상징을 나타내었다. 그것은 “지나가면서 높은 것을 깎아내고 낮은 것을 돋아준다.”<sup>38)</sup>라고 하여 물의 평형성의 이미지로써 사회적 평등관의 이미지와 결부시키기도 한다. 【작품4】에서는 사회 안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에 대한 비판이나 자신 스스로도 알 수 없는 협력과 동행의 모습을 하늘과 대비시켜 표현한다.

결국 작품에서의 물은 생명감, 순환, 정화, 자아의 발견, 자유, 기억의 집합, 무한한 깊이감이 주는 신성, 심리적 휴식 등의 느낌을 나타내는 것이다.

## 2) 하늘

하늘은 종종 사람이 땅에서 위로 올려다볼 때 보이는 곳으로 정의된다. 비록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봐 왔지만, 하늘은 정확하게 정의되기 어렵다. ‘하늘’의 개념은 지구의 땅 위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지평선 위의 대기, 또는 행성과 행성 위에 붙어있는 물체들의 보이는 표면 위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화될 수 있다.

또 많은 문화권에서 하늘을 천국과 다양한 신들의 보금자리 라고 믿으면서 하늘에 강한 종교적인 특성을 부여했다. 몇몇 종교와 미술사가들, 특히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과 하늘 사이의 연관에 대해, 천국은 보통 (더 중요한 존재로) 지상 세계의 위에 그려지고 구름을 이용해 분리했다. 본인의 어린 시절에는 이러한 천국이 구름 위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다. 또한 본인의 하늘에 대한 어떤 신비감이나 무한한 세계에 대한 기대는, 순수에 대한 소망이자 갈망이기도 했다. 그 모든 것도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이 넓고 깊은 편안한 하늘에 대한 표현이 맑은 하늘로 나타남이 그러하다. 이러한 하늘을 보고 마음을 다스리고 편안함을 누림을 인간관계나 욕망

---

38) 도올 김용옥, 『노자와 21세기(下)』, 통나무 출판사, 1999, p.47

의 몸부림에 대한 치유의 상징으로 작용시킨다. 【작품7】 그렇지만 하늘은 포용의 상징성과 더불어 종교적 의미의 심판이나 같은 맥락의 자연 재앙의 두려움을 갖게 하기도 한다. 【작품6】

본인에게 하늘은 자연적인 무한대의 넓은 공간에서 나오는 예측할 수 없는 역동적 에너지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물과 같은 순환성으로 우리에게 무한 상상을 유도하며 욕망에 대비되는 순수함과 정결함,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정신적 반성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작품 1】 둥, 장지에 채색, 102cm × 102cm, 2008



【작품 2】 봉, 장지에 채색, 102cm × 102cm, 2008



【작품 3】 트로이목마 전술, 장지에 채색, 201.5cm × 426cm, 2008



【작품 4】 무딘 동행, 장지에 채색, 201.5cm × 142cm, 2008



【작품 5】 빛나간 키, 장지에 채색, 201.5cm × 142cm, 2008



【작품 6】 sudden attack, 종이에 채색, 160cm × 260cm, 2007



【작품 7】 치유의 비행, 장지에 채색, 145cm × 204cm, 2007



【작품 8】 A play group, 장지애 채색, 163m × 135cm, 2007



【작품 9】 허영의 걸음, 장지에 채색, 146cm × 330cm, 2008

## IV. 결 론

우리가 몸으로서 살고 있는 사회는 타자에 의한 주체의 형성과 함께 상호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욕망들로 넘쳐 존재한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회는 겉으로 보기에 이상과 현실이 혼재 되어있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만 속을 들춰보면 그 괴리감이 엄청남을 느꼈다. 상호 교환적으로 사회성을 가지는 인간의 욕망은 물론 개인적인 것만은 아니다. 사람이 자연이나 사회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욕망에 대한 본인의 태도는 관조적인 비판으로 그치지 않았다. 눈을 감고 있는 동시에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인물들을 통해 비판을 해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인간관계가 존재하는 그 어디나 나타나는 여러 종류의 욕망과, 개인의 욕망의 몸부림을 우스꽝스러운 놀이의 면으로 해석해 보았다. 작품 속에 표현되어진 인물들의 움직임은 공격과 방어의 이중적 형태로서 인간 서로에 대한, 혹은 인간에게 다가오는 상황들에 반응하는 태도이자 본인 스스로의 갈등의 모습이기도 하다. 작품 속에서는 본인의 인간사회에 대한 내적 상처나 비판의 태도의 모습을 이미지로 시각화 시키고자 하는데서 시작되어 표현 되어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몸으로서의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상황, 그에 대비되어지는 물, 하늘의 개념이 다양하게 표현되어지고 해석되어질 수 있는 요소들을 설명했다. 물과 하늘은 자연의 이미지로 깊이와 넓이, 흐르고 스며들며 사물의 이미지를 비추는 등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통하여 시, 공간적인 사유를 이끌어 내도록 하는 대상이다. 이는 욕망에 찬 인간관계의 비판과 본인의 괴리에 마주하는 정화, 치유 혹은 재앙의 의미를 가지도록 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시도한 작품제작의 분석 결과, 욕망과 관계에 대한

본인의 물음은 비판의 모습과 더불어 스스로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반영하여 해학적으로 해석한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 되어졌다. 그 안에 본인의 견해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요소들의 이미지를 개입하였다.

본인은 앞으로 작업을 진행시키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본인의 태도가 작품에 드러나질 때, 욕망과 관계에 대한 표현이 미술에 있어서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고 재해석 되어지는 효과에 대한 작가로서의 책임을 더욱 상기하고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 작품을 통해 드러난 본인의 고찰이 보는 이로 하여금 물음을 제시하고 재반영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본인의 작품을 이론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좀 더 깊고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각과 작품표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강영안, 레비나스. 『타자성의 철학』, 철학과 현식, 1995

김현, 『몽상시학』, 홍익신서, 1978

도올 김용옥, 『노자와 21세기(下)』, 통나무 출판사, 1999

박준원, 『예술노트』, 서울: 미술문화사, 1995

정화열, 『몸의 정치와 예술, 그리고 생태학』, 아카넷, 2005

조광제, 『몸의 세계, 세계의 몸』, 2004

피종호, 『몸의 위기』, 까치, 2004

한국하이데거학회, 『하이데거 철학과 동양사상』, 철학과 현실사, 2001

한림미술관·이대기호학연구소, 『몸과 미술: 새로운 미술사의 시각』, 이화여자대학교, 1999

니콜라스 미르조예프, 『바디스케이프』, 이윤희, 이필 역, 시각과 언어, 1999

미와마사시, 『몸의 철학』, 해와달, 1993

장 폴 사르트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왕사영, 청아, 1993

### 학위논문

노주선, 『물의 은유를 적용한 주택디자인 연구』, 석사학위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2004

한우정, 『흔적에 대한 물이미지 표현연구』, 석사학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1

# ABSTRACT

## A Study on Express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esire and other people

- Centering around My Work -

Na, Yu - ri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was written by analyzing the theoretical content and expression of works that use human desires and relationships with others based on my personal exhibition pieces.

For me, a piece of art work is formatively unfolding situations that unfold in human problems, dilemmas for desires, and those that occur within relationships with others or psychological circumstances that take place between self and surroundings based on personal awareness or simply in the ongoing human life.

In order to understand human, first there is a need for significance and understanding of the basic body, and thus, they were discussed. The skin that surrounds the shapes of the body and the entire body absorbs the body's external world, and this flow takes place through the body. It takes its place as the center of the makeup of the world and the

essence of life. The body has its role and significance in absorbing its external world, recognizing it, and reacting to it.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the body that joins the body was expanded and organized, and the body that changes in art form based on the flow of society and culture was examined.

The body as a living system has sociality based on other bodies, in other words, with relationship with Other. Because humans are relationship centered social animals in addition to having a basic body, they live through mutual interactions. Among these, there are desires that stem from views, Other, and relationship with others as well as from within society.

At this time, the many desires that we have are formed through from "I" as an individual, or views or expectations of others, or through social order.

My works were done by focusing on the human image being shaken by confusion among such relationships or desires for social status and prestige.

This study was organized focusing my works that were expressed towards human desires and relationships with others. The people in the process of my work reveal my own internal self, and are at the same time criticisms of Other, and they were expressed through realistic attitude of accepting them with a smile but also expressed my own image and people who are interpreted with closed eyes and even offensive as well as defensive attitudes. Also the symbolism of the repetition of the background, the sky that signifies pure natural space that contrasts human society and the symbolism of water were

described.

In this way, this study analyzes the evidence and elements of my personal thoughts towards human society that are expressed through verbal approaches and organizes my personal opinions on the humans who becomes a third party by losing human identity and dignity, and empty desires that is created not by individuals but by the society . Also, it is a search of excursion that makes us shift the focus of our perception to our inner selves.